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裴嬉娟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 1199

URL: <http://www.kiep.go.kr>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裴嬉娟

국문요약

이란·이라크 전쟁, 1·2차 이라크 전쟁 등의 역내 분쟁과 석유·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개발 및 공급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의 관세동맹 실현, 단일통화 도입 계획안 마련 등의 추가적인 경제통합 움직임과 GCC·EU FTA 추진 등 세계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GCC 국가들은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로 표기)을 체결했으며, 요르단, 인도, 중국(GCC 최대의 무역파트너)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983년 자유무역지대 실현 이후 21세기 초반까지 GCC 국가들의 통합 움직임은 부진하였으나, 제2차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기반 구축과 석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그동안 부진했던 GCC·EU FTA 추진의 가속화이다.

EU는 그동안 GCC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EU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내 다자협력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아랍권과의 관계개선 및 정치적인 협력증진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 이익 외에 EU는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으로 GCC 국가의 서비스 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인 GCC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고

*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역내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있다.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경제발전이 느리고 실업률이 높은 GCC 국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을 기회로 내부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양 경제블록간 FTA 추진은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 지역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GCC의 경제적 이익이 EU의 경제적 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분석은 GCC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준다. 특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GCC의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업은 FTA 체결로 인해 현재보다 한층 나아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 블록간 FTA협상은 당초 기대와 달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진전이 늦어지고 있어, 200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양 블록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타결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EU와 GCC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GCC 개별 국가의 대미 FTA 추진 및 체결에 대한 내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와의 FTA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가 요구하는 FTA협상의제가 너무 야심 차고 포괄적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최근 인권문제, 이민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대테러 공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등에 관해서는 세부 실행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이 이슈들이 갖는 민감성을 생각할 때, 조기에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GCC·EU FTA협상은 우리나라가 향후 GCC와 FTA를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는 석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에 대한 GCC 의존도가 EU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 안보를 위한 FTA 체결의 필요성은 EU나 중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일내에 에너지 안보 확보방안으로서의 FTA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 례

국문요약	5
제1장 머리말	11
제2장 GCC(걸프만협력회의)의 발전과 GCC · EU FTA 추진 배경	14
1. GCC의 설립과 발전	14
2. GCC · EU FTA 추진배경과 협상경과	16
제3장 GCC의 경제구조	21
1. GCC의 경제 현황 및 특징	21
2. 국별 경제 현황	29
3. GCC의 교역구조	33
4. GCC의 서비스산업	43
제4장 GCC · EU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	46
1. 경제적 후생의 변화	46
2.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	54
3. 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58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61
참고문헌	64
부록	66
Executive Summary	73

표 차례

표 3-1. GCC의 주요 경제지표(2003년)	21
표 3-2. GCC의 인구 및 노동력 관련 지표(2004년)	22
표 3-3. GDP의 산업별 구성(2001년)	23
표 3-4. GCC 경제에서 석유·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4
표 3-5. 1990~2000년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 비교	25
표 3-6. 쿠웨이트와 오만의 부문별 노동력 분포	28
표 3-7. GCC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입 동향(2004년)	37
표 3-8. GCC 수출의 품목별 구성(2003년)	38
표 3-9. GCC 수입의 품목별 구성(2003년)	39
표 3-10. GCC 국가별 WTO 최혜국(MFN) 수입관세율	40
표 3-11. EU의 對GCC 국별 교역 추이	42
표 3-12. GCC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비중(2001년)	44
표 3-13. GCC와 EU의 GATS상 세부 양허서비스 목록	45
표 4-1. GCC·EU FTA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Ⅰ)	50
표 4-2. GCC·EU FTA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Ⅱ)	51
표 4-3. Baier & Bergstrand 분석결과	53
표 4-4. 연도별 제조업(경제활동) 투자금액 추이(누적)	54
표 4-5. 국가별 제조업부문 공장 수, 투자액, 노동력(2002년)	55
표 4-6. FTA에 따른 제조업 무역수지 변화: 기대치	56
부표 1-1. GCC·EU FTA가 GCC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Ⅰ)	66
부표 1-2. GCC·EU FTA가 EU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Ⅰ)	67
부표 1-3. GCC·EU FTA가 GCC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Ⅱ)	68
부표 1-4. GCC·EU FTA가 EU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Ⅱ)	69
부표 2-1. 바레인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0
부표 2-2. 쿠웨이트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0

부표 2-3. 오만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1

부표 2-4. 카타르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1

부표 2-5. 사우디아라비아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2

부표 2-6. UAE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72

그림 차례

그림 3-1. Dubai유 가격 추이	27
그림 3-2. GCC 국가들의 수출 추이(1990~2004년)	34
그림 3-3. GCC 국가들의 수입 추이(1990~2004년)	34
그림 3-4. GCC 국가들의 수출입비중(2004년)	35
그림 3-5. GCC 국가들의 역내 교역비중 추이(1980~2004년)	37
그림 3-6. GCC의 對EU 교역 추이	41

제1장 머리말

중동지역은 지난 몇 년간 국제뉴스의 1면을 차지해오고 있다. 정치뉴스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9.11 테러사태, 제2차 이라크 전쟁, 이란 핵 무기 개발 등이 있었으며, 경제뉴스로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듯 역내 분쟁과 석유만이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의 추가적인 경제통합 움직임과 GCC·EU FTA 추진 등 세계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GCC 국가들은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로 표기)을 체결했으며, 요르단, 인도, 중국(GCC 최대의 무역파트너)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¹⁾ 최근까지 GCC 국가들의 통합 움직임은 지지부진했으나 제2차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과 높은 석유의존도 감축의 필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출범한 WTO체제는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 지역주의(regionalism) 체제 대신 다자주의(multilateralism)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WTO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경제의 화두는 FTA와 역내 경제의 통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점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이 자유무역 등에 따른 이익을 보다 증대시키고 치열한 세계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통합, 특히 FTA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

1) 이와 함께 GCC 역내국가의 개별적 FTA 체결도 진행되고 있다. 바레인은 2004년 9월 중순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UAE, 오만 등도 미국과 FTA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다.

현재 대다수의 WTO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 가입해 있다. 1990년대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80여 개는 WTO 발효(1995년 1월) 이후 새롭게 체결된 것이다. WTO는 당초 2005년 말까지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3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2004년 10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의 수는 30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247개는 GATT 26조에 의해, 34개는 GATS 5조에 의해, 19개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통보된 상태이다. 그리고 300개 중 150개가 현재 실행 중이다.²⁾

국가들이 FTA를 체결 또는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간의 FTA 체결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및 안보적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³⁾ 근래에는 FTA가 국내제도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기존의 GATT 및 WTO 다자간 무역협상 및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 노동 등 특정사안에서 체약국들간 상이한 법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및 안보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FTA가 국내제도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사례인 ‘GCC·EU FT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GCC·EU FTA’의 배경과 그 협상경과 등을 살펴볼 것이며, 제3장에서는 GCC를 중심으로 경제구조 및 교역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4장에서는 FTA에 따른 양 경제블록의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GCC 국가들의 관심사인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과 EU의 관심사

2) <http://www.wto.org>

3) 법무부(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인 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GCC·EU FTA’의 전망과 에너지안보 및 신흥시장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중요성을 갖는 중동지역(GCC)과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GCC(걸프만협력회의)의 발전과 GCC · EU FTA 추진 배경

1. GCC의 설립과 발전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는 1981년 5월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역내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는 역내 안전보장 협력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의 대외협력, 경제협력 등에 관한 다양한 활동⁴⁾을 하고 있다. GCC는 당초 1979년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안전보장’ 및 ‘정치·군사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역협력체였으나, 최근 들어 역내 협력의 범위를 안전보장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⁵⁾

GCC는 역내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1983년 3월부터 역내 자유무역조치⁶⁾(FTA 단계; 역내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 해제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
- 4) 6개국은 교대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 외무장관은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정상회담 등 회동의 주요 활동이 GCC 국가들의 대외적인 목소리 통일이었다.
 - 5) 제1차 이라크 전쟁(1990년) 이후 UN의 이라크 경제제재 참여 여부로 심각한 갈등양상(사우디아라비아 vs 카타르)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치적 문제에 관한 대립을 완화하고 경제협력단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동맹 이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 6) FTA 시행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들의 역내 교역비중은 1982년 5%에서 2000년 7%로 매우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 완전시행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단일통화에 대한 기초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까지 단일통화위원회를 설립하여 2010년에는 ‘단일통화’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GCC 단일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통합계획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상이한 발전전략의 채택, 산업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서 경제통합에 따른 이득보다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 단일통화 채택에 따른 경제주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책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 미루어져 왔다.

특히 관세동맹의 경우, 1993년 관세단일화에 관한 원칙이 이미 수립되었으나 보상·분배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999년 9월 GCC 국가들은 2005년부터 관세동맹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2001년 12월 GCC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을 변경하여 EU와의 FTA협상을 위해 2003년부터 단계적인 관세동맹의 실행에 들어가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GCC 회원국은 관세동맹을 통해 역외 관세를 무관세품목과 5% 관세품목으로 단일화하였다.⁷⁾ 또한 역내 국가간 상품·노동·자본의 이동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했으며, 역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회원국간 지적재산권 문제, 표준 정립 및 역내 투자 등에 관한 협력도 실시하고 있다.

GCC 단일 관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GCC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통관절차는 최초 상품도착국가에 의해 처리된다. 수입상품이 국경을

7) 이외에 ‘특별상품’과 ‘금지상품’ 범주를 두고 있는데, 와인 등의 주류 및 담배가 이에 해당된다. 주류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제품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담배 등 인체유해제품에 대해서도 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넘어서 다른 GCC 국가로 이동(위탁판매 등)할 경우에는 최초 도착국가에 관세를 납부했음을 증명(관할국가 세관의 인증 필요)하는 것으로 국경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징수된 관세는 GCC 국가간 관세의 분배·청산을 위해 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역내 원산지 상품의 경우에는 통계 작성을 위해 국경 통과시 세관당국에 신고절차만을 거치면 된다. GCC의 계획에 따르면, 관세동맹의 1단계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관절차의 숙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2단계는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1단계 결과의 보완작업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⁸⁾

이론적으로 관세동맹이 이루어지면 회원국 공통의 관세법 및 통관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나 GCC 국가는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GCC는 국가간 관세수입 배분, 자국제품 보호관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3년의 완충기간을 거친 다음 2006년부터 관세동맹을 정식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 GCC · EU FTA 추진배경과 협상경과

가. 추진배경

FTA를 체결하려는 배경은 다양하지만, 크게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안보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U는 GCC가 보유한 막대한 오일머니라는 경제적 요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정치·안보(에너지안보 포함)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GCC는 자국의 산업발전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에 보다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

8) Gulf News(2002. 12. 31), "Excerpts from the GCC customs union law."

인다.

최근 들어 EU는 EU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내 다자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미국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아랍권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U의 對아랍 관계는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북아프리카 아랍국, 팔레스타인 및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아랍국, 그리고 아라비아반도의 걸프국가(GCC 포함)이다.⁹⁾ 따라서 EU 입장에서 GCC와의 FTA 추진은 아랍권과의 관계 확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GCC · EU FTA 추진배경은 첫째, EU의 아랍국가(GCC 포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있다. EU는 냉전체제 이후,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의 확산을 꼽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해결방법은 중동평화의 정착이다. 중동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중동지역에서 EU와 미국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9.11 테러 이후 이러한 경쟁관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U 국가 중 프랑스 · 독일 등은 제2차 이라크 전쟁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불편함을 표명하는 등 중동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아랍국가들을 껴안으려 하고 있다.

둘째, 양 블록이 서로에게 갖는 경제적 중요성과 FTA 체결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으로 GCC의 서비스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인 GCC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를 통해 GCC 역내에서의 EU 지적 · 산업재산권 보호문제와 세관행정 협력, 표준 및 인증시스템 협력, 경쟁정책의 조화, 자본

9) 하병주(2001), 「EU와 아랍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본 신지중해 네트워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GCC는 FTA를 통해 석유·가스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¹⁰⁾ GCC 국가들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석유 산업 이외의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시장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셋째, GCC는 FTA가 내부 경제개혁 및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CC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체제 내적인 문제(과도한 산업보호, 정부개입 등)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성장을 장려하는 구조적 개혁이 내부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CC에 있어 EU와의 FTA 체결은 적절한 개혁 추진의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나. 협상경과

양 경제블록간 FTA협상은 1989년 EU·GCC협력협정(The 1989 EC·GCC Cooperation Agreement)상의 ‘FTA협상 약속’에서 출발하였다.¹¹⁾ EU·GCC협력협정에 따라 1990년 양 경제블록간 FTA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협상은 곧바로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 1990년대 10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GCC가 ‘2005년까지 관세동맹 창설’ 약속을 공표함과 동시에 EU와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다시금 양 지역간 FTA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에 EU 이사회는

10)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regions/gcc/index_en.htm

11) EU·GCC협력협정 11조에 따르면, 양측은 공동선언문 규정에 따라 양 지역간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16일 GCC의 관세동맹 설립을 조건으로 FTA협상 추진을 승인하였고,¹²⁾ 그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협상이 재개되었다. GCC와 EU는 2002년에 다섯 차례, 2003년에 두 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2004년 1월에 마지막 공식협상을 가졌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Pascal Lamy 통상 담당 집행위원, GCC 사무총장과 의장간 회담이 2003년 7월과 2004년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이 2004년 1월에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 소개할 공동 연구결과¹³⁾가 2004년 5월 말에 발표되었다.

EU가 설정한 양 경제지역간 FTA 추진의 목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서비스시장과 상품시장의 자유화에 있다. 상품분야는 양측의 안을 교환하여 세부협상에 들어갔으며, 서비스분야는 2004년 1월에 양측 최초 안을 교환한 상태이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및 경쟁정책 등에 관해 논의 중이며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인권문제 등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2004년 5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4차 EU · GCC 공동이사회 및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Joint Communiqué)에서 양측은 상품교역의 대부분이 FTA에 포함될 것이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 경제블록은 인권, 이민, 대테러 공조, 대량살상무기

12) EU 이사회(Council)의 지령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EU 집행위원회 무역 총국장(파스칼 라미)의 중동 방문 보도자료(2001. 4. 19)에 소개된 초안에 의하면,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지적 · 산업 · 상업재산권, 정부조달, 관세협력, 경쟁정책 등이 지령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14차 EU · GCC 공동이사회 및 각료회의의 공동선언문(Joint Communiqué)에서 양측은 FTA협상 의제로 인권(human rights), 이민(migration)을 채택했으며, 테러 방지(counter-terrorism)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Non-proliferation)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양 경제블록간 정치적인 이슈도 지령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3) PriceWaterhouseCoopers(2004),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IA) of the negotiations of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ountri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WMD) 확산 금지 등에 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FTA 조항에 인권문제와 이민문제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상품교역분야의 최대 쟁점은 석유화학산업¹⁴⁾과 알루미늄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GCC 국가들은 EU에 알루미늄 관세를 6%대에서 0%로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GCC 최대의 수출상품인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EU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CC 국가들은 석유화학 산업과 알루미늄산업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EU와의 주요 쟁점이던 걸프지역의 석유화학제품과 알루미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¹⁵⁾를 EU측이 폐지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 이 중 유가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EU가 새롭게 FTA협상의 의제로 포함시킨 대테러 공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및 서비스분야의 협상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14)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GCC 국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경우, 2003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596만 톤(5.3%), 카타르가 102.5만 톤(0.9%), 쿠웨이트가 80만 톤(0.7%), 아부다비가 60만 톤(0.5%)으로 이 4개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15) 한국비철금속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EU의 알루미늄 관련 제품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괴 6%; 알루미늄 분 5.1/5.3%; 알루미늄 봉 7.5%; 알루미늄 선 7.5%; 알루미늄 판 7.5%; 알루미늄 박 7.5/10%; 알루미늄 관 0(항공기용)/7.5%; 알루미늄 관연결구 7%.

제3장 GCC의 경제구조

1. GCC의 경제 현황 및 특징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은 모두 석유·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세습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003년 GCC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규모가 2,147억 달러로 GCC 전체(3,859억 달러)의 약 56%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이 잇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었던 2003년의 경우, OPE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모두 7%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1. GCC의 주요 경제지표(2003년)

구 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GDP(십억 달러)	8.7*	41.6*	21.6*	19.5*	214.7	79.8
GDP 성장률(실질, %)	6.8	9.9*	1.1*	7.8*	7.2	7.0
1인당 GDP(천 달러)	11.8*	16.7*	7.9*	31.2*	8.9*	19.6*
인구(백만 명)	0.7	2.5	2.6*	0.6	24.2	4.0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	1.6*	1.2*	-0.4	2.3	0.6	3.1
상품 수출(FOB, 십억 달러)	6.7	21.0	11.7	12.6	95.4	60.8
상품 수입(FOB, 십억 달러)	5.1	9.7	6.1	5.3	33.9	41.7
상품 수출의 GDP 비중(%)	77.0	50.5	54.2	64.6	44.4	76.2
상품 교역의 GDP 비중(%)	135.6	73.8	82.4	91.8	60.2	128.4

주: * 표시된 수치는 EIU 추정치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 Profile*.

1인당 GDP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국이면서도 가스 산업이 발달한 카타르가 3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가스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만이 각각 약 8천 달러와 9천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개국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역량은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역내 중계무역 중심지인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으며 GDP 대비 교역비중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 참고).

표 3-2. GCC의 인구 및 노동력 관련 지표(2004년)

구 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구(천 명)	672	2,484	2,540	636	20,847	4,040
내국인(천 명)	418	914	1,870	-	15,589	-
외국인(천 명)	254	1,571	670	N.A	5,258	N.A
외국인 비율(%)	37.8 (02E)	63.2 (03E)	26.4 (02E)	70.0 (04E)	25.2 (04E)	80.0 (95E)
인구증가율(%)	1.56	3.36	3.35	2.74	2.44	1.57
노동인구(천 명)	350	1,380	920 (02E)	140	6,430	2,160
노동인구 중 외국인 비율(%)	44.0	80.0	N.A	N.A	35.0	73.9
순이민 유입률	1.05	14.18	0.28	16.29	-2.71	1.03
실업률(%)	15 (98E)	2.1 (04E)	N.A	2.7 (01E)	25 (04E)	2.4 (01E)

주: 1. 쿠웨이트의 인구증가율은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귀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수치임.

2. 순이민 유입률의 단위는 천 명당 명수이며, () 안은 CIA 또는 EIU 추정연도임.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EIU, *Country Profile*.

GCC 국가들은 사막 지리 및 기후의 영향으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불과 3천만 명(3,122만 명) 수준에 불과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인구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 중 1/3 가량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경우 전체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무려 70~80%에 이른다. 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카타르의 순이민유입률이 아프가니스탄(천 명당 23.06명), 케이맨제도(18.25명)에 이어서 세계 3위(16.29명)이며, 쿠웨이트가 4위(14.18명)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랍권과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이 많다. 게다가 GCC 국가내에서 15세 이하의 유소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2000년)로, EU의 17%(2000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표 3-2 참고).¹⁶⁾

표 3-3. GDP의 산업별 구성(2001년)

(단위: %)

구 분	농림 수산업	석유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바레인	0.7	24.8	12.0	1.4	4.0	57.4
쿠웨이트	0.5	43.7	6.4	0.5	2.4	46.7
오만	2.0	42.8	8.3	1.0	2.1	45.6
카타르	0.4	64.6	5.6	1.3	3.8	32.4
사우디아라비아	5.3	33.1	10.0	0.5	6.3	43.8
UAE	3.5	29.9	13.9	1.9	6.9	44.3
GCC 합계	3.8	35.5	10.2	0.9	5.6	44.0
EU(2001년)	3.1	1.5	32.1	3.4	8.2	51.7

주: EU 자료는 농업은 15개국 기준, 여타 산업은 25개국 기준의 합계임.

자료: Bahrain Government, *Statistical Abstracts* 2002; Eurostat, *The Eurostat yearbook* 2004.

16) 바레인의 경우 내국인 41만 7,940명 중 15세 이하의 비율은 36.5%이다.

GCC 국가의 산업별 GDP 구성을 살펴보면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농림수산업이 3.8%, 석유산업과 광업이 35.5%, 제조업이 10.2%, 전력·가스·수도사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서비스업은 44.0%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바레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EU나 한국,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은 GCC 6개국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석유·가스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GCC 6개국은 모두 경제적으로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이다. 석유·가스부문은 역내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재정수입과 총수출의 3/4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는 경제활동이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카타르는 가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표 3-4 참고).

표 3-4. GCC 경제에서 석유·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GDP 대비 비중	15.7	57.8*	41.1	59.0*	38.5	31.9
정부수입대비 비중	-	88.6	75.7*	-	71.8	75.1
수출수입대비 비중	71.0	90.7	66.5	-	-	44.9

주: * 표시된 경우는 2002년 기준이고 나머지는 2003년 기준임.

자료: EIU, *Country Profile & Report*.

이렇듯 GCC 경제 전체가 석유·가스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좌우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할 경우¹⁷⁾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표 3-5]에서 보듯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GCC 지역의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은 0.1%에 그쳤으며,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 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5. 1990~2000년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을 비교

(단위: %)

구 분	GCC	MENA	개도국	전 세계
1인당 GDP 성장률	0.1	1.1	3.0	1.2

주: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중동지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여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차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봉기, 이란 핵문제, 레바논의 시리아군 철수문제 등 최근 벌어졌던 수많은 지역내 갈등과 분쟁은 GCC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나치게 내부지향적인 경제체제의 지속 역시 낮은 성장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높은 무역장벽을 쌓아놓고 과도한 정부 개입하에 지나친 규율과 규제로 경제를

17)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배럴당 20달러를 하회했으며, 1998년의 12.2달러는 1980년 이래 최저가였다.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 보호장벽¹⁸⁾은 관세동맹과 FTA 추진으로 향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이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편중된 산업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역시 석유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여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GCC 국가들은 석유·가스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가스 이외 산업으로의 산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산업들로 인해 비대해진 정부부문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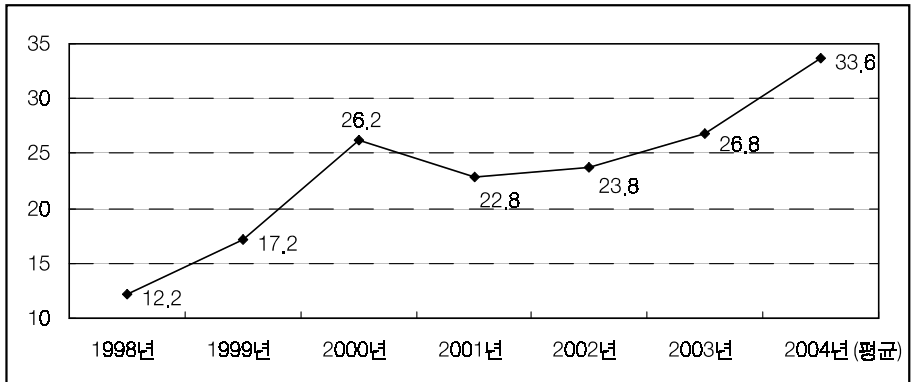
최근에는 [그림 3-1]과 같이 고유가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 국가들은 오일달러에 의해 건설해진 재정을 기반으로 비석유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²⁰⁾ 2003년의 경우 세계 평균인 3.9%보다 높은 7%대의 경제성장률을

-
- 18)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씨앗, 동물, 육류, 서적, 영화, 테이프,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카타르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표준, 시험, 인증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서비스 무역장벽과 투자장벽도 존재한다.
 - 19) 자유무역지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구역(Jebel Ali Free Zone)은 100% 외국인투자 및 경영권 행사 허용, 소득세·법인세 등 영업 관련 세금 전액 면제, 과실(이윤)송금 허용, 현대적인 교통·통신망 등을 바탕으로 총 100여 개국에서 2,2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하여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설립된 두바이공항 자유구역(Dubai Airport Free Zone)과 두바이 인터넷미디어시티(Dubai Technology, E-Commerce & Media Free Zone)로 불리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2002년 말 현재 UAE 외국인투자의 95% 이상이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0) GCC 6개국의 2004년도 석유(원유) 판매수입은 2003년에 비해 무려 46% 증가한 2,0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GCC 국가들의 대폭적인 석유수입 증가는 재정 흑자로 연결되어 각종 공공 개발프로젝트 추진, 공공 부채 상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등으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록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쿠웨이트, 카타르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림 3-1. Dubai유 가격 추이

(단위: \$/bbl)



주: 연평균 가격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나. 높은 실업률

GCC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자국민 실업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범위한 청년실업은 반미심리와 함께 사회불안요인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정치·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률은 2~3%대에 불과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치 자체가 각각 25%와 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 3-2 참고).

GCC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첫째, 높은 인구증가율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셋째,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발전 지체,²¹⁾ 넷째, 낙후된 교과과정 및 교육체제, 다섯째,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비체계적 민영화 정책, 여섯째, 자국민 고용의 정부부문 의존 등이 주로 거론된다.

한편 정부부문에 의한 노동력 배분의 왜곡현상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의 내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²²⁾ 공공부문의 과도한 혜택 부여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내국인 노동자가 몰리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고용의 필요성이나 적격 여부, 재정부담 등과 상관없이 내국인 고용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공급하였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향후 정부부문의 고용증대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 쿠웨이트와 오만의 부문별 노동력 분포

(단위: 명)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쿠웨이트(2003년)	246,000	85,000	17,000	1,053,000
오만(2002년)	101,161	24,410	65,879	547,477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EIU, *Country Profile*.

- 21)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석유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이 용이한(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22) 민간부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은 민간부문에 종사할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며 둘째, 국민들의 유보임금(기대임금수준)이 경쟁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셋째,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과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감수하며,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다. 넷째, 통상 동일 직무에도 내국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섯째,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부가급여(휴가, 보험 등)를 지급하고 있다.

23) John Duke Anthony(2004),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onstraints & SIA."

GCC 국가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각종 자국민 고용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부문의 임금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외국인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낮은 기술과 학력이 요구되는 저임금분야에서는 고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추가비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생산성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즉 내국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인력이동은 장기적인 개혁추진방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별 경제 현황

가. 바레인

바레인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자연적인 무역허브가 되었다. 바레인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진주 채취의 중심지였으나 20세기 중반부터 석유를 개발·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비해 부족한 석유매장량은 바레인 경제를 다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바레인은 관광이나 금융과 같은 서비스부문(2001년 기준 GDP의 57.4%)과 석유정제부문, 알루미늄생산부문이 발전하였다.

비록 석유·가스 부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석유·가스 매장량이 부족하므로 주변국에 비해 정부부문의 활동이 크지는 않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수입이 GDP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오

고 있지만 아직도 GCC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운영과 정부수입을 보전하고 있다.

나. 쿠웨이트

쿠웨이트 경제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석유산업이 지배하고 있다. 석유산업이 수출의 90~95%, 정부 재정수입의 80%, 명목GDP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분야도 석유정제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하류(downstream)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 관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부문의 실질GDP에 대한 기여도는 2001년에 불과 6.4%였다. 그리하여 쿠웨이트는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영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쿠웨이트는 중동지역의 중계무역에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전후 이라크의 재건 특수와 더불어 이란, CIS 국가 등 대규모 배후시장을 대상으로 한 중계무역기지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웨이트는 지난 1998년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했으며, 이라크와도 국경지대에 대규모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 오만

여타 GCC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주변국에 비해서는 석유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전개발이 어려워 최근에는 석유생산량이 일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신 가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스 산업은 다른 주요 산업부문(전력·상수도)의 연료 및 원료로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LNG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LNG 수출항구 건설·확장 등 관련 건설부문의 활동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 카타르

카타르 경제 역시 지속적인 산업다각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가스 산업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석유·가스 산업이 명목GDP의 60%에 달했다. 카타르의 석유부문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공공기관의 임금 지급에 대한 재원조달 역할 외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에 반해 최근 카타르 경제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는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25.5조 입방미터, 1,500억 배럴의 석유에 해당하는 양으로 향후 현재 생산량 수준으로 300년간 지속생산이 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천연가스개발사업에서 GCC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향후 카타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공급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²⁴⁾

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매장량의 1/4에 해당하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석유 부존국이자 수출국으로 현재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2,627억 배럴에 이른다. 석유가 생산되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전통적인 유목과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낙후된 상태였으나,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석유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산업과 오아시스 농업,

24) 카타르는 EU와 Qatargas II를 비롯하여 각종 가스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2010년대 EU의 주요 LNG 공급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목 및 가내수공업이 병존하는 이중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막대한 석유수입을 재원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고 석유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업, 제조업, 상업 등 비석유분야를 적극 육성해 석유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시키는 산업다각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 역점을 두어 기존의 정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액화, 비료, 시멘트공장 등의 신설 및 확장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바. 아랍에미리트(UAE)

최근 두바이 등 일부 에미리트의 산업다각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 역시 전반적으로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아부다비(Abudabi)는 UAE에서 가장 큰 석유생산지이며,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라스알카이마(Ras-Al-Kahaima)가 그 뒤를 잇고 있다. UAE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명목GDP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0%, 1993년 35.8%, 1998년 20.8%로 점점 낮아져 왔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로 비중이 조금 상승해 25~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자원은 여전히 정부수입의 주요 부문으로 비석유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바이는 UAE의 경제수도이자 중동지역의 명실상부한 무역허브 및 서비스센터로서 남아시아지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영향력을 동부 아프리카와 구소련 남부 공화국들에까지 넓혀 나가고 있다. 2002년 UAE의 재수출(중계무역)액은 139억 달러로 UAE 총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서는 40%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그 중

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한편 UAE의 중계무역에서 두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르고 있다.

3. GCC의 교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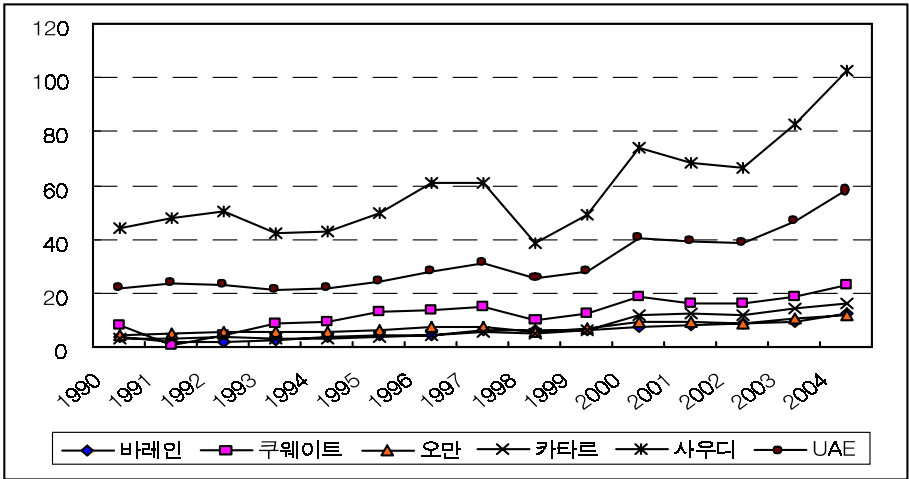
가. 개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GCC 국가들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6개국 모두 대체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2, 그림 3-3 참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국가의 교역량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2002~04년)의 증가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GCC 6개국 중 교역량이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 기간 교역액이 1,142억 달러에서 1,631억 달러로 42.8% 늘어났고, 그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UAE는 이 기간 교역액이 691억 달러에서 1,293억 달러로 무려 87.1% 상승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석유 수출이 많은 쿠웨이트, 천연가스 수출이 많은 카타르가 차례로 잇고 있다.

수출과 수입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4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02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수입은 603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425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UAE의 경우 2004년 수출이 584억 달러, 수입이 709억 달러에 달하여 1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UAE를 제외한 여타 GCC 국가는 모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쿠웨이트의 경우, 2004년 수출 231억 달러, 수입 126억 달러를 기록하여 1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카타르와 오만, 바레인도 각각 89억 달러, 39억 달러, 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3-2. GCC 국가들의 수출 추이(1990~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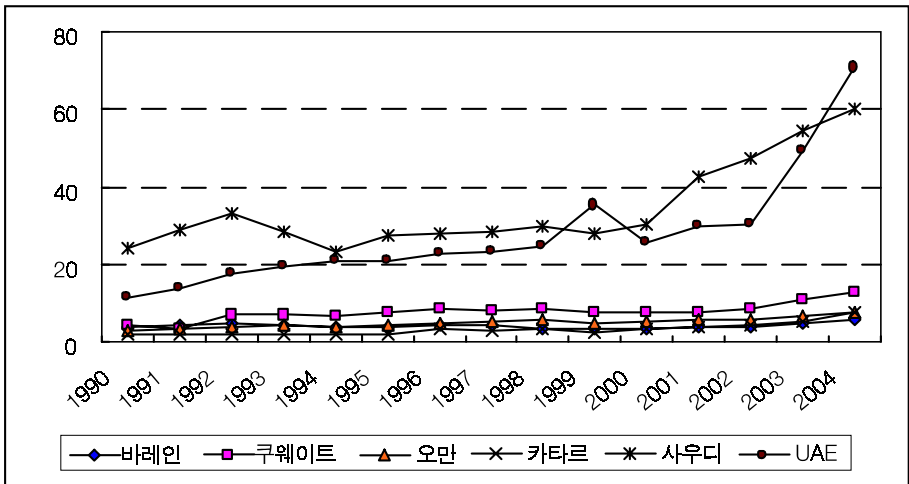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그림 3-3. GCC 국가들의 수입 추이(1990~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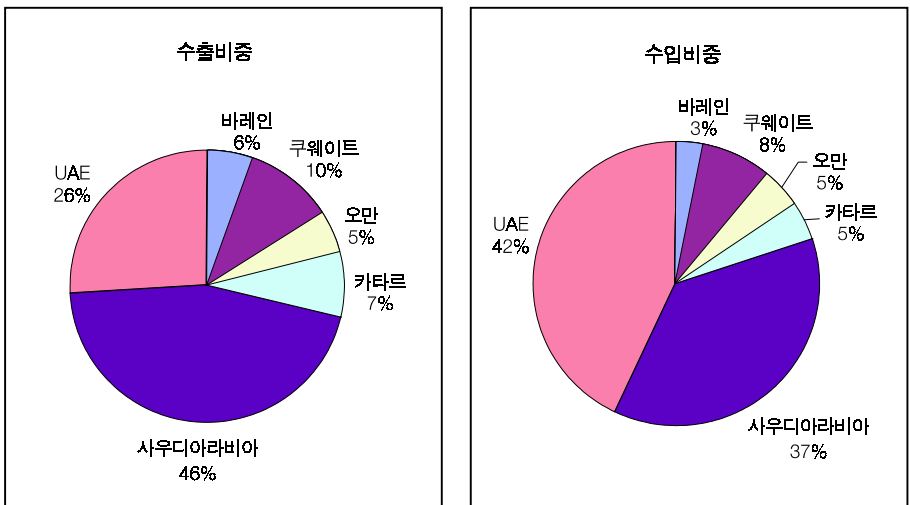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그림 3-4]는 2004년 GCC 전체의 수출과 수입에서 각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GCC 6개국 중 GDP 대비 교역비중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국가의 수출입비중이 각각 전체 수출입의 72%와 79%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경제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UAE가 26%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오만은 각각 10%, 7%, 6%, 5%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비중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각각 37%와 42%를 기록하여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이 각각 8%, 5%, 5%, 3%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GCC 국가들의 수출입비중(2004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나. 교역구조상의 특징

1) 지역별 교역구조

GCC 6개국의 지역별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GCC 국가에서 역외 수출·수입액이 전체 수출·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고). GCC 국가들의 유사한 부존자원을 고려할 때, 역내 교역보다 역외 교역규모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2004년 GCC 국가들의 역외 수입액은 1,55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1,647억 달러)의 94.2%에 해당하며, 수출의 경우 역외 수출액이 2,1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액(2,250억 달러)의 95.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EU로부터의 수입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7.7%와 7.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일본이 GCC 전체 수출액의 21.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U와 미국은 각각 14.6%와 1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특성상 수출은 석유소비국(한·중·일, EU,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인접국가와 제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CC 역내 FTA를 체결했던 1983년 이후의 국가별 역내 교역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오만의 경우만 4%에서 15% 가까이 상승했을 뿐, 바레인에서는 17%로 떨어졌으며, 나머지 4개국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그림 3-5 참고). 그러나 역내 교역액은 1990년 75.3억 달러에서 2004년 190억 달러로 14년간 2.5배 가량 증가하였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은 역내국가의 산업구조와 비교우위산업이 극히 유사함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바레인과 오만을 제외하고는 GCC 역내 교역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EU와의 교역은 GCC 전체 교역량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7. GCC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입 동향(2004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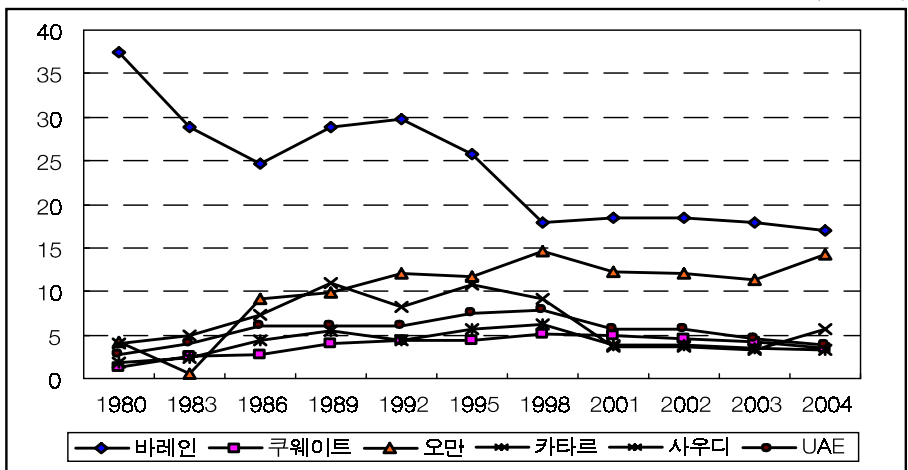
구 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GCC	비중
총수입	5.7	12.6	7.7	7.5	60.3	70.9	164.7	100.0%
GCC 역내	2.4	1.0	1.6	0.7	1.3	2.5	9.5	5.8%
EU	1.6	4.6	2.2	4.4	16.4	24.2	53.4	32.4%
US	0.3	1.7	0.4	0.5	5.6	4.2	12.7	7.7%
일본	0.4	1.0	1.3	0.7	4.0	5.1	12.5	7.6%
기타 전 세계	1.0	4.3	2.2	1.2	33	34.9	76.6	46.5%
총수출	12.7	23.1	11.6	16.4	102.8	58.4	225.0	100.0%
GCC 역내	0.8	0.3	1.1	0.7	4.1	2.5	9.5	4.2%
EU	0.4	2.9	0.5	1.3	20.9	6.9	32.9	14.6%
US	0.4	3.1	0.4	0.3	19.9	1.1	25.2	11.2%
일본	0.3	5.2	1.5	7.2	16.8	16.7	47.7	21.2%
기타 전 세계	10.8	11.6	8.1	6.9	41.1	31.2	109.7	48.8%
총교역액	18.4	35.7	19.3	23.9	163.1	129.3	389.7	

주: 비중은 GCC의 지역별 교역액 비중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그림 3-5. GCC 국가들의 역내 교역비중 추이(1980~2004년)

(단위: %)



주: 비중은 역내 교역비중(%)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2) 품목별 교역구조

GCC 국가들은 역내국가의 산업구조와 비교우위산업이 극히 유사하여 품목별 교역구조가 동질적이며, 주력 수출품목과 수입품목도 유사하다. GCC 국가들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의 몇몇 상품을 역외로 수출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재수출비중이 높은 UAE를 제외한 GCC 5개국의 광물제품 수출은 전체의 74.3~91.5%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이며, 알루미늄제품의 수출이 일부 국가(바레인, UAE)에서 많고, 플라스틱제품의 수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3-8. GCC 수출의 품목별 구성(2003년)

(단위: %)						
품 목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광물(석유·가스)제품	74.3	91.5	77.1	86.0	88.4	48.5
식·음료, 동물 등	0.9	N.A	0.9	12.0	0.9	4.3
석유화학제품	2.8	4.4	0.6		4.6	1.9
플라스틱제품	0.5	N.A	0.4		2.0	3.3
기초금속 및 제품	14.0	0.8	0.9		1.0	N.A
전자기기, 수송기계 등	2.4	0.6	N.A		0.4	0.7
기타 수출	4.9	1.3	4.9		1.3	8.2
재수출	N.A	1.4	15.2	2.0	1.4	32.9

자료: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Annual Reports*; IMF, *United Arab Emirat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Qatar Central Bank, *Annual Report 2004*; Bahrain monetary agency, *Quarterly Reports 2004 4Q*; Central Bank of Oman, *Annual Reports 2003*; IMF, *Statistical Annexes 2004(Kuwait, UAE)*.

한편 GCC의 주요 수입품목은 식음료, 기호품, 기계류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수송장비(자동차 등), 각종 전자제품 등으로 이 품목들이 전체 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계류와 수송장비의 수입액은 전체의 23.3~44.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9 참고). 이 품목들의 대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역외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3-9. GCC 수입의 품목별 구성(2003년)

(단위: %)

품 목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 아라비아	UAE
식·음료, 동물 등	5.6	14.4	12.2	10.2	12.4	7.4
기호품(담배 등)	4.1	0.9	4.7	6.4	4.8	2.8
광물제품	40.2	0.5	3.3	N.A	0.7	1.0
석유화학제품	7.8	8.7	7.5	10.2	9.1	5.8
플라스틱, 고무제품	2.0	18.7 (공산품)	15.4 (공산품)	20.8 (공산품)	3.9	3.9
가죽, 가죽제품	0.2				0.3	0.5
목재, 코르크	0.8				1.0	0.9
제지, 종이제품	1.3				2.0	1.3
면직물, 의류 등	4.0				5.4	8.7
생활잡화류	0.3		6.2		0.7	0.9
유리, 세라믹 등	1.9		N.A		2.1	2.1
진주, 귀금속 등	0.3		N.A		1.0	14.5
기초금속 및 금속제품	5.3	2.3	4.4		9.1	8.1
기계류 및 부품	12.5	39.8	43.0	44.8	21.8	24.2
수송장비	10.8				21.2	12.4
의류기기, 정밀기기 등	1.1	N.A	N.A	N.A	3.1	2.7
기타	1.7	14.6	3.2	N.A	2.4	2.7

주: 1. 카타르는 2000년 자료, 쿠웨이트, UAE는 2002년 자료임.

2. UAE의 귀금속 수입에는 비화폐용 ‘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재수출되고 있음.

3. 2003년 UAE의 자유무역지대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의 8.7%를 차지하였음.

자료: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Annual Reports*; IMF, *United Arab Emirat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Qatar Central Bank, *Annual Report 2004*; Bahrain monetary agency, *Quarterly Reports 2004 4Q*; Central Bank of Oman, *Annual Reports 2003*; IMF, *Statistical Annexes(Kuwait, UAE)*.

3) 관세구조

GCC 회원국들은 그동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GCC의 국가별 평균 MFN 관세를 살펴보면,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관세율이 각각 3.4%와 4.4%로 가장 낮고,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두 자릿수대로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표 3-10 참고). 그러나 GCC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의 발족을 통해 관세율을 5%로 대폭 조정하였다. 한편 EU의 평균관세율은 3.8%에 불과하다.

표 3-10. GCC 국가별 WTO 최혜국(MFN) 수입관세율

(단위: %)

구 분(HS Section)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EU-15
동물&동물 제품	16.0	0.8	10.1	4.0	9.5	19.5	4.4
채소류	14.7	0.9	5.1	4.0	11.2	16.3	5.1
동·식물성 유지	26.3	0.0	5.7	4.0	12.0	13.8	5.3
식료품	23.3	8.9	26.0	11.3	10.7	25.0	13.0
광물성 제품	5.8	4.0	5.0	4.0	12.1	8.4	0.3
석유화학제품	17.4	4.0	7.3	4.0	11.4	11.3	4.2
고무, 플라스틱제품	18.1	4.0	6.2	4.0	12.1	13.5	4.7
가죽, 모피제품	0.0	2.7	11.7	4.0	12.1	13.4	2.4
코르크, 목재	9.8	4.0	8.5	4.0	12.3	13.2	2.8
펄프, 종이제품	16.0	3.4	4.2	4.0	11.2	10.9	1.3
섬유 및 의류	18.0	4.0	8.3	4.0	12.4	15.7	7.5
신발 및 기타 제품	21.6	3.0	11.9	4.0	12.0	17.9	5.2
광석, 광산물	22.3	4.0	7.8	4.0	12.2	16.9	3.6
보석, 귀금속류	30.0	4.0	14.4	4.0	11.6	15.5	0.7
기조금속, 금속제품	11.7	3.6	6.2	4.2	12.5	11.1	2.8
기계류	14.2	4.0	8.1	4.0	12.0	11.1	2.2
수송장비	8.5	4.0	6.6	4.0	10.1	10.6	2.7
특수장비	13.1	4.0	12.2	4.0	11.5	13.1	3.1
무기류, 군수품	15.0	0.0	15.0	4.0	7.1	11.7	2.7
기타 제조품	30.0	4.0	12.4	4.0	13.7	18.4	2.7
예술품	10.6	3.7	9.0	4.2	12.1	13.7	3.0
제품 평균	16.3	3.4	9.6	4.4	11.5	14.3	3.8

자료: UNCTAD(2003), Trade Information and Analysis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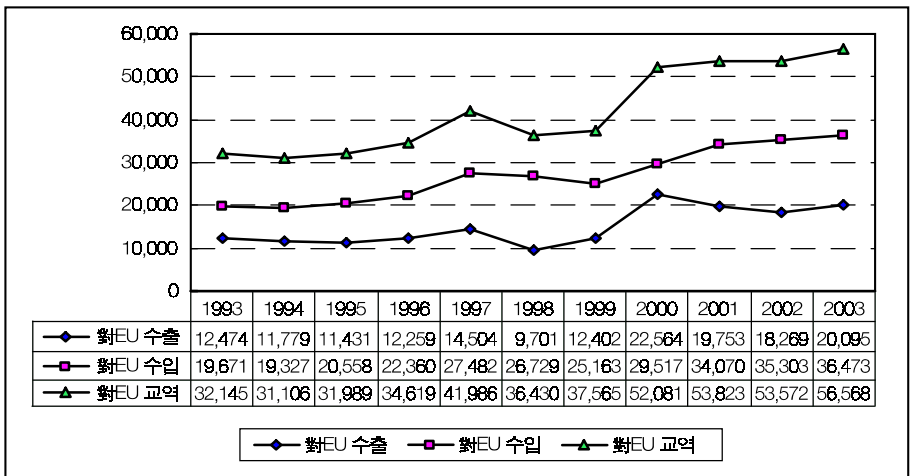
다. GCC의 對EU 교역

GCC는 EU의 5번째 수출파트너지역이자 14번째 수입파트너지역이다. 한편 GCC 입장에서 EU는 최대의 교역파트너이다. 국제유가가 고유가로 돌아섰던 2000년을 전후해서 GCC와 EU간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3-6]에서 보다시피, 지난 10년간 GCC와 EU의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양 지역간 수출입은 국제유가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1998년과 1999년 소폭 하락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93년 GCC의 對EU 수출은 약 124.7억 유로, 수입은 약 196.7억 유로를 기록하여 양 지역간 총교역량은 321.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 GCC의 對EU 수출과 수입은 각각 약 201억 유로와 364.7억 유로를 기록, 교역량이 약 565.7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76%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6. GCC의 對EU 교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주: EU 15개국에 대한 교역 추이임.

자료: EUROSTAT(2004).

그러나 GCC가 EU의 역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체의 3~4%, 수입은 전체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량이 286.5억 유로로 가장 많고, 중계무역이 활발한 UAE가 239.1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3-11 참고).

표 3-11. EU의 對GCC 국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바레인	수입	444	526	386	346	340
	수출	901	941	944	954	1,190
	교역	1,345	1,467	1,330	1,300	1,530
쿠웨이트	수입	3,212	2,384	1,812	1,930	2,239
	수출	2,378	2,792	2,953	3,121	3,542
	교역	5,590	5,176	4,765	5,051	5,781
오만	수입	187	285	435	238	358
	수출	1,141	1,455	1,388	1,293	1,665
	교역	1,328	1,740	1,823	1,531	2,023
카타르	수입	374	670	461	848	980
	수출	1,351	1,943	1,907	2,218	3,349
	교역	1,725	2,613	2,368	3,066	4,329
사우디 아라비아	수입	15,920	13,160	12,383	12,988	16,093
	수출	12,143	13,418	14,259	13,567	12,552
	교역	28,063	26,578	26,642	26,555	28,645
UAE	수입	2,519	2,853	2,907	3,911	5,297
	수출	12,067	14,082	14,675	16,445	18,613
	교역	14,586	16,935	17,582	20,356	23,910
GCC	수입	22,656	19,877	18,385	20,262	25,307
	수출	29,980	34,631	36,126	37,600	40,911
	교역	52,636	54,508	54,511	57,862	66,218
EU 역내	수출	1,696,692	1,737,508	1,749,967	1,781,002	2,010,190
	수입	1,781,193	1,842,219	1,865,662	1,878,496	1,918,210
	교역	3,477,885	3,579,726	3,615,629	3,659,498	3,928,400
EU 역외	수출	995,980	983,748	942,626	940,886	967,100
	수입	857,782	895,844	903,559	883,067	1,028,400
	교역	1,853,763	1,879,592	1,846,185	1,823,953	1,995,500
EU 역외교역 중 GCC 비중	수출	3.0	3.5	3.8	4.0	4.2
	수입	2.6	2.2	2.0	2.3	2.5
	교역	2.8	2.9	3.0	3.2	3.3

주: EU 25개국에 대한 교역 추이임.

자료: EUROSTAT(2005).

GCC 국가가 공통적으로 EU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과 관련 제품, 섬유 및 의류, 항공기용(무동력 항공기용 포함) 부품, TV 등 일부 전자제품의 부품 등이며, 이 부문에서 대체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통적으로 보일러·엔진·기계류, 일반차량, 전자기기·제품, 의료용품, 정밀기기, 철강제품, 항공기 등의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²⁵⁾

4. GCC의 서비스산업

앞서 밝혔듯이 정부부문이 주도하는 석유·가스 산업이 GCC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비석유산업부문, 특히 제조업과 농업부문은 정부의 여러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이 미미한 편이다. 또한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데 반해, 바레인을 제외한 GCC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표 3-12]에서 보다시피 GCC의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년에 44.0%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선도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57.4%와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내에서는 도소매, 호텔·음식숙박업이 8.4%, 운송·통신·창고업이 5.2%, 금융·보험서비스가 5.5%, 부동산서비스가 6.4%, 정부서비스가 16.2%,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 2.3%를 차지한다.

25)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에서 정리하였다.

표 3-12. GCC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비중(2001년)

(단위: %)

구 분	도소매 · 호텔 · 음식업	운송 · 통신 · 창고업	금융 · 보 험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정부 서비스	서비스업
UAE	11.2	7.7	4.6	7.8	10.7	44.3
바레인	11.1	7.5	18.7	9.5	15.8	57.4
사우디아라비아	7.3	4.5	5.1	6.5	18.2	43.8
오만	12.4	6.4	3.6	5.7	15.9	45.6
카타르	6.0	3.2	7.6	0.0	13.2	32.4
쿠웨이트	6.8	3.4	6.6	6.3	18.5	46.7
GCC 합계	8.4	5.2	5.5	6.4	16.2	44.0

주: 서비스업 합계에 기타 서비스가 포함되며, 바레인은 통계오차로 기타 서비스가 (-)임.
 자료: Bahrain Government, *Statistical Abstracts* 2002.

정부(공공)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6.2%)은 6.1%인 한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18%가 넘는다. GCC 국가의 경제구조가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정부(공공)서비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서비스업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GCC 국가들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극히 낮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GATS상의 양허분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바레인의 경우 금융서비스만 허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여신 · 대부 · 외환거래 등의 은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도 양허분야내에서 세부적으로는 비양허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표 3-13]의 GATS상 세부 양허서비스 목록을 살펴보면, GCC 국가 중 쿠

웨이트가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으며, 카타르와 UAE가 비슷한 정도의 개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개국 모두 EU의 관심사항에 속하는 교육서비스와 교통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GCC·EU FTA협상의 서비스분야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13. GCC와 EU의 GATS상 세부 양허서비스 목록

서비스부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EU
비즈니스서비스	-	허용	-	허용	-	허용	허용
통신서비스	-	-	-	허용	-	허용	허용
건설 및 관련 기술서비스	-	허용	-	허용	-	허용	허용
유통서비스	-	허용	-	-	-	-	허용
교육서비스	-	-	-	-	-	-	허용
환경서비스	-	허용	-	허용	-	허용	허용
금융서비스	허용	허용	-	허용	-	허용	허용
보건 관련 및 사회서비스	-	허용	-	-	-	-	허용
관광 및 관광 관련 서비스	-	허용	-	허용	-	허용	허용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허용	-	-	-	-	허용
교통서비스	-	-	-	-	-	-	허용

자료: WTO Services Database, SECTOR-SPECIFIC COMMITMENTS.²⁶⁾

26) <http://tsdb.wto.org>.

제4장 GCC · EU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적 후생의 변화

FTA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세장벽이 제거(또는 완화)될 경우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분석하고, 무역창출과 전환에 따른 국민소득(GDP) 또는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무역창출효과란 역내 각 회원국이 비교우위산업에 특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역증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국민후생증대 등의 이득을 뜻한다. 즉 관세철폐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국가(국내)에서 생산하던 것을 효율적인 국가(역내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무역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란 종전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국(低생산비국) 제품의 수입이 지역무역협정 후에는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역내 타회원국(高생산비국) 제품의 수입으로 전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회원국들의 국민후생이 저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방법론으로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모델과 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CPE)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데, 두 가지 모두 사전적이며 이론적인 분석방법으로서 분석결과를 경제적 후생의 증가(일반적으로 GDP의 % 변화를 산출)로 나타낸다.

GCC · EU FTA에 관한 연구는 여타 FTA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GCC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GCC · EU의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무역대상이 주로 에너지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등 무역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

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쟁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공개되지 않았고, GCC 관련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자체 분석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기존 GCC · EU FTA 연구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일반적인 무역패턴과 관세율 구조 등을 통해 GCC · EU FTA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표 3-10] 국가별 WTO 최혜국(MFN) 수입관세율에 따르면, EU의 평균관세율은 3.8%로 낮은 편이며, GCC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천연가스는 무관세이므로, GCC · EU FTA 체결시 GCC의 對EU 수출증가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EU 수입품에 대해 GCC 국가들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FTA 체결시 EU의 對GCC 수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GCC에 비해 EU가 보다 큰 경제적 이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연구결과 중 일부는 이러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대체로 GCC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EU의 경우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Price Waterhouse Coopers(이하 PWC로 표기, 2004),²⁷⁾ Dean A. DeRosa & David Kernohan(이하 DeRosa & Kernohan로 표기, 2003) 그리고 Scott L. Baier & Jeffrey H. Bergstrand(이하 Baier & Bergstrand로 표기, 2004)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결과와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결론부터 살펴보면, PWC와 DeRosa & Kernohan은

27)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블록)와의 FTA협상을 자문하기 위해 컨설팅회사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에 FTA에 따른 잠재적 기대효과의 분석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PWC의 분석 중에서 경제적 효과에 국한하여 소개하지만, PWC의 분석에는 사회적 ·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FTA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외에도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함께 다루고 있다.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모델을 사용하여 GCC·EU FTA 체결 시 GCC의 경제적 이익은 큰 반면, EU의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Baier & Bergstrand는 FTA에 따른 기대효과를 경험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결과, EU의 이익이 GCC보다 많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앞선 연구와는 상반되게 GCC측의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 PWC, DeRosa & Kernohan의 연구결과

PWC와 DeRosa & Kernohan은 GCC 관세동맹과 GCC·EU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 가능한 무역시물레이션 모델²⁸⁾을 만들었다. 관세동맹과 FTA하에서 GCC가 역외관세율을 각각 5.0%,²⁹⁾ 3.3%³⁰⁾로 결정할 경우와 GCC와 EU가 완전개방경제체제를 채택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를 상정하여, 총 5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함께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GCC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역외관세율 5.0%에 따른 결과를 주로 소개하겠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PWC는 GCC·EU FTA 체결시 GCC의 경제적 후생은 장기적으로 GDP의 2.7%만큼 증가할 것이며, EU의 경제적 후생은 GDP의 0.2% 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GCC 관세동맹 체결에

28) PWC가 무역시물레이션 모델의 Database 및 Parameter Value와 관련하여 사용한 국제무역통계는 UNSD(UN Statistical Division)의 Comtrade(1999~2001)이다. 이 통계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19개국(GCC 6개국 포함), EU, 미국, 일본, 기타 선진공업국, 기타 개발도상국의 24개 지역과 21개의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관세는 UNCTAD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의 MFN 관세를 사용하였고, 수출·수입 탄력성은 모든 국가가 같다고 보고, Stern et al.(1976)의 계량통계 연구조사자료를 사용했다.

29) GCC가 관세동맹을 발족하면서 실제로 부과한 역외관세율.

30) GCC 국가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평균관세율.

따른 GCC의 경제적 후생은 GDP의 1.5%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³¹⁾했다.

GCC · EU FTA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관세동맹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평균관세율이 현 관세동맹의 역외관세율 5%보다 낮은 쿠웨이트(3.4%)와 카타르(4.4%)의 경우에는 관세동맹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이 각각 GDP의 0.3%와 0.6%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평균관세율이 역외관세율 5%보다 높은 바레인(16.3%)과 UAE(14.3%)의 경우, 경제적 후생이 각각 GDP의 5.0%와 2.1%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동맹을 시행하게 되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GCC의 환율이 평균 3~4% 평가절하된다. 그 결과 GCC는 석유·가스 부문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금속제품, 직물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부문에서도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GCC 관세동맹 시행시 23.3억 달러만큼의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10.5억 달러만큼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GCC 전체로는 GDP의 1.5%만큼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부록 참고).

GCC · EU FTA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를 살펴보면, GCC 환율은 평균 6.5% 하락하여 관세동맹하에서보다 더 큰 폭의 평가절하가 발생하게 되고 무역전환효과는 6.2억 달러로 관세동맹하(10.5억 달러)에서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또한 무역창출효과는 23.3억 달러에서 29.3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PWC는 GCC 수출업자들이 EU라는 매력적인 거대한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GCC 소비자들이 기계류, 운송장비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EU 수출품에 대해 면세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부록 참고). 이에 반해 EU는 GCC · EU FTA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많으며,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31)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 는 본 보고서 [부록]에 소개되어 있다.

잉여의 증가분보다 관세수입 포기분이 많아서, 오히려 경제적 후생이 GDP의 0.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GCC·EU FTA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1)

(단위: GDP의 % 증가분)

구 분	(A) GCC 관세동맹 (CET 5.0%)	(B) GCC·EU FTA (CET 5.0%)	(B-A) FTA로 인한 추가효과
바레인	5.0	7.0	2.0
쿠웨이트	-0.3	0.8	1.1
오만	1.2	2.8	1.6
카타르	-0.6	1.7	2.3
사우디아라비아	1.8	3.0	1.2
아랍에미리트	2.1	2.9	0.8
GCC 전체	1.5	2.7	1.2
EU 전체	0.0	-0.2	-0.2

자료: PWC, *SIA of the negotiations of the GCC·EU FTA*.

DeRosa & Kernohan은 앞서 소개한 PWC와는 조금 다른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DeRosa & Kernohan은 GCC·EU FTA 체결시 [표 4-2]에서와 같이 GCC의 경제적 후생이 GDP의 2.3%만큼 증가할 것이며, PWC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EU의 경제적 후생도 GDP의 0.2%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GCC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GCC의 경제적 후생변화를 GDP의 1.9% 증가라고 분석했다. 국별로 살펴보면, PWC의 연구결과에서처럼 관세동맹과 FTA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바레인과 UAE의 후생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GCC · EU FTA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II)

(단위: GDP의 % 증가분)

구 분	(A) GCC 관세동맹 (CET 5.0%)	(B) GCC · EU FTA (CET 5.0%)	(B-A) FTA로 인한 추가효과
바레인	4.7	5.4	0.7
쿠웨이트	0.2	0.7	0.5
오만	1.7	2.3	0.6
카타르	0.3	1.5	1.2
사우디아라비아	1.9	2.4	0.5
아랍에미리트	3.1	3.2	0.1
GCC 전체	1.9	2.3	0.4
EU 전체	0.0	0.2	0.2

자료: DeRosa & Kernohan,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a GCC · EU FTA*.

나. Baier & Bergstrand의 연구결과

PWC나 DeRosa & Kernohan의 접근방식과 달리, Baier와 Bergstrand는 CGE 방식이 아닌 경험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FTA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Baier & Bergstrand의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총국과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로 1차적으로 틴버젠의 중력방정식을 통해 FTA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불편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ATE(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고, 더미변수를 사용해 ATE를 분석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 중요한 정책변화가 간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인 경제규모 등에 기초한 multilateral resistance(MR)를 고려해 다시 조정작업을 거침으로써 보다 명확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에서는 Baier & Bergstrand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GCC · EU FTA의 무역창출효과는 모든 무역 대상과 기간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4-3]에서 보다시피 먼저 Dummy변수, MR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한적 모형을 살펴보면, GCC와 EU의 경우 양 지역간 교역액의 33%에 해당하는 145억 달러의 무역이 창출되지만, 무역전환효과가 양 지역간 교역액의 7.6%(34억 달러)만큼 발생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무역량이 많은 GCC와 여타 지역간 무역전환효과가 교역액의 7.1%(154억 달러)만큼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FTA에 따른 GCC의 경제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EU의 경우 불과 28억 달러 상당의 순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고, GCC의 경우 무역창출보다 무역전환효과가 커서 43억 달러 상당의 순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Dummy변수, MR 등을 사용해 보다 현실에 가깝게 조정작업을 거친 모델(비제한적 모형)에서 얻은 총무역창출효과는 교역액의 65%로 전자의 경우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전환효과는 양 지역간 교역액의 0.424%에 불과하므로, EU · GCC간의 순무역창출효과는 교역액의 64.5%에 이른다. 또한 GCC 국가들과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전환효과가 각각 교역액의 0.394%이며, EU와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전환효과는 각각 교역액의 0.024%로 미미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EU는 FTA 체결로 인해 280억 달러 상당, GCC는 270억 달러 상당의 순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³²⁾

Baier & Bergstrand는 보고서에서 앞선 두 가지 연구가 사용한 CGE 모델의 몇 가지 단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생산함수나 효용함수와 관련된 몇몇 parameter를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parameter의 변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CGE 모델은 F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GCC 국

32) 한편 미국과 기타 국가간의 무역전환효과는 -0.006%로 오히려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들과 EU 국가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매우 상이하므로 CGE 모델을 가지고 양 지역간 FTA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세 이외의 무역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역비용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에 치중하고 있고, 무역장벽의 제거에 따른 관세 이외의 무역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적절히 나타내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Baier & Bergstrand는 비제한적 모형을 통해 GCC · EU FTA 체결로 인해 EU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거나 매우 작다는 결과를 도출한 앞선 두 연구와는 다른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EU의 산업보호를 위해 GCC · EU FTA협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EU내 FTA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 Baier & Bergstrand 분석결과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비제한적 모형		제한적 모형	
(지역, 지역)	교역규모(2000년)	%	금액	%	금액
1. 무역창출					
EU · GCC	43.8	65.00	28.30	33.00	14.5
미국 · 기타	1,687	0.006	0.101	-	-
2. 무역전환					
EU · GCC	43.8	0.424	0.190	-	-
EU · 미국	579	0.024	0.139	7.600	3.40
EU · 기타	1,842	0.024	0.442	-	0.30
GCC · 미국	27.4	0.394	0.108	0.432	8.00
GCC · 기타	189.6	0.394	0.747	7.100	15.4
3. 총효과					
EU	-	-	28.00	-	2.80
GCC	-	-	27.00	-	△4.30

자료: Baier & Bergstrand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

GCC 제조업부문의 총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발전 정도와 국제 경쟁력 수준을 유추해볼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총투자(누적)가 이루어진 분야는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제품 산업이었고, 그 다음이 비철금속, 금속가공분야이다. 제2장에서 GCC·EU FTA의 쟁점으로 지적했던 석유화학 산업과 알루미늄산업이 GCC의 제조업 중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02년의 제조업 부문별 고용 1인당 총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이 41만 9,559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강산업 32만 6,728달러, 비철금속산업 10만 9,962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의 수도 석유화학산업, 비철금속, 철강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³³⁾

표 4-4. 연도별 제조업(경제활동) 투자금액 추이(누적)

(단위: 백만 달러)

제조업 분야	2001년	2002년			2003년
		투자금액	고용인력 (명)	1억 달러 이상 기업 (개)	
금속 가공	7,937	8,392	170,116	9	8,901
제철공업	6,677	6,645	20,338	10	6,770
비철금속	9,714	10,009	91,022	22	11,072
석유화학·플라스틱제품	52,926	57,952	138,126	39	61,033
제지, 출판, 인쇄	2,114	2,190	34,813	2	2,392
제재, 목재, 가구	796	843	30,397	0	918
의류, 직물, 가죽제품	1,384	1,461	77,370	1	1,587
식음료	7,258	7,572	95,302	6	7,980
기타	350	358	12,451	0	377
제조업 전체	89,156	95,422	669,935	89	101,030

자료: Industrial Market Intelligence Department,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GOIC), *Gulf Industrial Bulletin*, Volume 5, Issue 52 & 48.

33) 단 고용인원은 금속가공, 석유화학산업, 식음료, 비철금속, 의류·직물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공장개수, 고용인원, 투자금액 모두 경제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참고)

표 4-5. 국가별 제조업부문 공장 수, 투자액, 노동력(2002년)

구 분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공장 수(개)	2,428	363	3,415	860	459	713
투자금액(백만 달러)	11,052	5,377	62,972	2,467	6,585	8,065
노동력(명)	193,346	28,950	338,110	40,182	28,774	52,608

자료: Industrial Market Intelligence Department,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GOIC), *Gulf Industrial Bulletin*, Volume 5, Issue 51.

앞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GCC 경제에서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GCC · EU FTA가 체결되면 GCC는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업에서 지금보다 개선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PWC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GCC 관세동맹만을 시행했을 경우 광산물(석유·천연가스)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문이었으나 GCC · EU FTA가 체결되면 비교우위부문의 확대에 의해 EU뿐만 아니라 여타 역외국가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게 된다. PWC는 FTA 체결시 제조업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직물, 의류, 가죽제품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집약적이면서도 숙련노동을 요구하는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알루미늄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³⁴⁾이라고 분석했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34) 비교우위산업(석유화학, 알루미늄 등)의 확대결과 현재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환경규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이 1.33%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1.38% 늘어날 것이며, 식물, 의류, 가죽 제품의 경우도 수출은 4.6%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목재가공업을 제외한 여타 부문의 수출감소로 제조업 전체의 수출은 1.24%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1.3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6. FTA에 따른 제조업 무역수지 변화: 기대치

(단위: %)

제조업 분야	수출 변화	수입 변화	무역수지 변화
식음료업, 기호품	-0.37	1.00	-1.12
식물, 의류, 가죽제품	4.60	-3.59	5.50
목재, 목재 가공업	2.00	-3.26	3.33
제지, 인쇄·출판업	-1.53	3.33	-5.65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	1.33	0.81	1.38
비금속 광물자원(석유, 석탄 제외)	-1.47	3.24	-4.36
기초금속공업	-1.70	0.46	-2.84
금속가공, 기계, 부품	-1.25	3.45	-3.69
기타 제조업	0.20	-5.54	5.80
제조업 전체	1.24	1.12	1.38

자료: PWC, *SIA of the negotiations of the GCC · EU FTA*.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해 주요 시장인 EU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원유생산지에 인접한 많은 석유화학공장 설비의 가동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EU로의 수출증가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산업은 FTA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GCC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업종이자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알루미늄산업에 대해 에너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과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CO₂) 감축의무를 당장 지게 되는 EU와 달리 개도국으로서 준수 유

예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EU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CC 알루미늄산업은 단기적으로 EU의 6%대 관세인하에 따른 혜택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우위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CC · EU FTA가 체결될 경우, 개방된 서비스부문에서 고용이 우선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제조업부문에서는 중간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내국인들에게 적합한 고용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첫째,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저임금노동분야³⁵⁾에서는 FTA로 인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내하는 수준의 임금을 GCC 내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간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분야(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기초금속공업, 금속가공 등)에서 GCC 내국인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FTA로 인해 생산이 증가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석유화학산업뿐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표 4-6]에서 보듯이, 평균임금이 높은 부문에서는 석유화학산업군만이 FTA 체결로 인해 1.38% 상당의 무역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유화학산업과 함께 직물, 의류산업분야에서도 FTA를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이 부문은 향후 FTA 체결로 인해 5.5%의 무역수지 증대가 기대되며, 특히 카타르의 경우 그 혜택을 크게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³⁶⁾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분야의 무역수지 증대가 도리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물, 의류부문은 대표적인 노동착

35) 직물, 의류, 가죽제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카타르의 경우 제조업 평균임금의 33% 수준, 오만과 쿠웨이트는 4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목재, 가구업의 경우도 카타르는 제조업 평균임금의 50%, 오만은 90%, 쿠웨이트는 53% 수준에 불과하여 대체로 이 부문에 저학력, 비숙련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카타르는 제조업 노동력의 35.6%가 직물, 의류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취산업이므로 내국인이 종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CC 각국 정부는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내국인의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제조업부문의 고용증대 가능성을 살펴봤으나, 늘어나고 있는 내국민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 면에서 GCC 국가내 서비스산업부문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EU와의 FTA협상에서 서비스부문을 다룰 필요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투자 장벽 외에도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은 상품 생산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상품교역에서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통해 상품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또한 서비스 교역 자유화로 인한 기술이전 등은 학습효과와 지식의 전파를 통해 상품의 생산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서비스의 특성상 생산요소가 소비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부문이 역내에 존재하게 된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수입장벽 해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부문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다.

GCC·EU FTA협상에서 서비스 양허가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WTO GATS상의 양허 이외에 추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WC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부문 중 특히 통신과 금융부문 등에서 EU로부터의 FDI 증가와 수입증가가 기대된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주식 소유 상한선의 제거, 사업자의 국적 및 거주요건 폐지, 토지 및 건물 구입시 제한

조건 폐지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경우 FTA를 통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가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지만, GCC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분야이므로 시장개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서비스 개방도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호 자격인증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6개국 모두 기본적인 통신망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EU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현재 공공부문에 편입되어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인 민영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

남성 위주의 서비스부문인 건설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GCC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일정 부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인 개방이 가능한 분야이다. 판매(도소매)서비스업은 여성 고용이 많은 부문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인력이 많으나, GCC의 도소매업과 EU 업체간 경쟁력 차이가 현격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밀수·위조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서비스 역시 GCC의 에너지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야이지만 관련 기술의 격차로 일정 부분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EU 업체들이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는 국가경쟁력의 기초요소이며, 특히 수출신용과 수출보험 서비스는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 경쟁력을 보유한 은행권에 비해 GCC의 보험시장은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자본축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EU는 금융서비스분야의 추가개방과 투명성 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GCC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GCC 각국 정부는 EU의 금융인프라, 기술 및 관리노하우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CC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EU가 앞장서서 개방

을 추진하는 것이 GCC 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더욱이 GCC 국가에 중요한 문제는 정부부문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어떻게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거나 민영화시킬 것인가 등으로 정부조달프로그램과 민영화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앞서 GCC·EU FTA 추진배경에서 살펴봤듯이, EU는 정치적인 이익에, GCC는 경제적인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경제발전이 느리고 실업률이 높은 GCC 국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을 기회로 내부개혁에 나서야 하는바, 양 경제블록간 FTA 추진은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 지역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GCC의 경제적 이익이 EU의 경제적 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은 GCC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준다. 특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GCC의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업은 FTA 체결로 인해 현재보다 한층 나아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를 통해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GCC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부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걸프국가들은 금융, 건설,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석유에서 여타 산업부문으로의 점진적인, 그러나 정교한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한편 GCC와 EU는 2005년 4월 바레인 마나마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양 지역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05년 말까지 FTA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시작된 양측간 FTA협상에서 구체적인 목표타결시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양 지역간 FTA협상이 본격 재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 블록간 FTA협상은 당초 기대와 달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진전이 늦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타결시점을 예상하기

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EU와 GCC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은 2004년 9월 GCC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이 미국과 연내 FTA 체결을 목표로 2005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개별국간 FTA 체결은 대외적으로 5%의 역외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GCC의 관세동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심도 있게 쌓아온 GCC 내부의 경제적 단일성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블록으로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GCC 개별 국가의 대미 FTA 추진 및 체결에 대한 내부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EU와의 FTA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WC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로 인한 EU측의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데다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EU의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업 및 의류산업 등 업계와 노동자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CC의 서비스분야 양허협상도 양 경제블록간 현격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GCC로 하여금 EU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하도록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EU가 요구하는 FTA협상 의제가 너무 야심 차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U는 최근 인권문제, 이민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대테러 공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등에 관해서는 세부 실행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이 이슈들이 갖는 민감성을 생각할 때, 조기에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GCC·EU FTA협상은 우리나라가 향후 GCC와 FTA를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는 석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에 대한 GCC 의존도가 EU보다 높아³⁷⁾ 에너지안보를 위한 FTA 체결의 필요성은 EU나 중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이상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일내에 에너지안보 확보방안으로서의 FTA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우리나라는 GCC에 51.8억 달러를 수출하고, 293.3억 달러를 수입하여 240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³⁸⁾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무선전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TV, 합성섬유, 에어컨, 철강제품, 고무제품, 선박 등을 주로 수출했고, GCC로부터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알루미늄제품을 수입했다. 한·GCC 교역구조는 GCC·EU의 교역구조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GCC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려 할 경우, 먼저 ‘원유’ 및 ‘석유제품’을 무관세로 개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업’에 대한 추가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삭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는바, 한·GCC FTA는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37) 2004년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65.7%, 수입액의 65.2%에 해당하는 원유를 GCC 국가에서 수입했다.

38) 수입은 석유·석유제품과 천연가스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은 교역규모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배희연. 2002. 『UAE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지역리포트 02-06.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 하병주. 2001. 「EU와 아랍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본 신지중해 네트워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 한국비철금속협회. 2004. 『비철금속제품의 무세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4. 『석유화학편람』.

[외국문자료]

- Bahrain Government. 2002. *Statistical Abstracts*.
- Bahrain Monetary Agency. 2004. *Quarterly Reports 4Q*.
- Central Bank of Oman. 2003. *Annual Reports*.
- CIA. 2004. *The World Factbook*.
- Dean A. DeRosa and David Kernohan. 2003. "The GCC Customs Union and Proposed EU-GCC FREE TRADE AGREEMENT in a 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 of World Trade." (November)
- Dean A. DeRosa and David Kernohan. 2004.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an EU-GCC FTA." (July)
- EIU. 2004. *Country Report & Profile: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 European Commission. 2002. "Restart of negotiations for EU-GCC Free Trade Agreement." (March 20)
- Eurostat. 2004. *The Eurostat yearbook*.
- Gulf News. 2002. "Excerpts from the GCC customs union law." (December 31)
- IMF. 2004. *Statistical Annexes*.

-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Industrial Market Intelligence Department of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GOIC). 2004. *Gulf Industrial Bulletin*. Volume 5, Issue 51, 52, 48.
- Jayanta Roy and Jamel Zarrouk. 2002. "Completing the GCC Customs Union?" (June 6)
- John Duke Anthony. 2004.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onstraints & SIA." (February 4)
- MEES & MEED. Various issues.
- PriceWaterhouseCoopers. 2004.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IA) of the negotiations of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ountri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May 30)
- Qatar Central Bank. 2004. *Annual Report*.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2004. *Annual Report*.
- Scott L. Baier and Jeffrey H. Bergstrand. 2004. "Trade Agreements and Trade Flows: Estimating the Effect of FTA on Trade Flow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U - GCC FTA."
- Strategic Insight. 2003. *Economic integrations in the Gulf Region: Does the Future hold more promise than the past?*
- UNCTAD. 2003. *Trade Information and Analysis System*.
-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http://www.bilaterals.org>
- <http://www.wto.org>
-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regions/gcc/index_en.htm
- <http://library.gcc-sg.org>

부록

부표 1-1. GCC · EU FTA가 GCC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1)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관세동맹		GCC · EU FTA		MFN
	5.0% CET	3.3% CET	5.0% CET	3.3% CET	
1. 실질환율변화(\$대비)	(-3.4)	(-4.2)	(-6.5)	(-6.7)	(-7.4)
= 실질 수출변화	2,610	2,953	4,153	4,290	4,390
2. 무역 창출효과 = 실질 수입변화	2,326	2,597	2,929	3,131	3,003
3. 무역 전환효과	1,047	1,007	622	551	0
4. 순 무역 창출효과 (4=2-3)	1,279	1,591	2,307	2,580	3,003
5. 소비자잉여 변화	846	933	1,507	1,380	1,374
6. 생산자잉여 변화	4,327	5,074	7,659	7,929	8,118
7. 관세수입 포기분	680	529	949	497	0
8. 경제적 후생의 변화 (8=5+6-7)	4,493 (1.5)	5,478 (1.8)	8,217 (2.7)	8,812 (2.9)	9,492 (3.2)

주: () 안은 증감률(%),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GDP의 % 증감분임.

자료: PWC,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negotiations of the GCC · EU FTA*.

부표 1-2. GCC · EU FTA가 EU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1)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관세동맹		GCC · EU FTA		MFN
	5.0% CET	3.3% CET	5.0% CET	3.3% CET	
1. 실질환율변화(\$대비)	(0.0)	(0.0)	(0.3)	(0.2)	(-1.9)
= 실질 수출변화	-11	-16	10,636	9,672	42,900
2. 무역창출효과	241	286	12,397	11,304	43,729
3. 무역전환효과	0	0	13,437	12,302	0
4. 순 무역창출효과 (4=2-3)	241	286	1,040	998	43,729
5. 소비자잉여 변화	-73	-117	4,445	4,149	16,033
6. 생산자잉여 변화	-59	-98	11,616	10,291	45,393
7. 관세수입 포기분	0	0	17,684	17,642	0
8. 경제적 후생의 변화 (8=5+6-7)	-131 (0.0)	-215 (0.0)	-1,624 (-0.2)	-3,202 (-0.2)	61,426 (0.9)

주: () 안은 증감률(%),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GDP의 % 증감분임.

자료: PWC,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negotiations of the GCC · EU FTA*.

부표 1-3. GCC · EU FTA가 GCC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II)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관세동맹		GCC · EU FTA		MFN
	5.0% CET	3.3% CET	5.0% CET	3.3% CET	
1. 실질환율변화(\$대비)	(-4.8)	(-4.2)	(-6.4)	(-6.5)	(-7.4)
= 실질 수출변화	3,509.2 (2.9)	2,953.2 (2.4)	4,078.8 (3.3)	4,145.8 (3.4)	4,389.9 (3.6)
2. 무역창출효과 = 실질 수입변화	288.2 (0.4)	2,597.5 (3.5)	2,979.0 (4.0)	3,041.2 (4.1)	3,003.1 (4.1)
3. 무역전환효과	826.8 (1.1)	677.7 (0.9)	5,615.6 (7.6)	4,132.6 (5.6)	0.0 (0.0)
4. 순 무역창출효과 (4=2-3)	-538.6 (-0.7)	1,919.8 (2.6)	-2,636.6 (-3.6)	-1,091.4 (-1.5)	3,003.1 (4.1)
5. 소비자잉여 변화	76.2 (0.0)	159.8 (0.1)	83.1 (0.0)	84.3 (0.0)	85.6 (0.0)
6. 생산자잉여 변화	6,025.2 (2.0)	5,074.1 (1.7)	7,494.9 (2.5)	7,617.8 (2.5)	8,117.8 (2.7)
7. 관세수입 포기분	477.9 (0.2)	369.6 (0.1)	547.6 (0.2)	716.3 (0.2)	0.0 (0.0)
8. 경제적 후생의 변화 (8=5+6-7)	5,623.5 (1.9)	4,864.3 (1.6)	7,030.4 (2.3)	6,985.8 (2.3)	8,203.3 (2.7)

주: () 안은 증감률(%),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GDP의 % 증감분임.

자료: DeRosa & Kernohan,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a GCC · EU FTA*.

부표 1-4. GCC · EU FTA가 EU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II)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관세동맹		GCC · EU FTA		MFN
	5.0% CET	3.3% CET	5.0% CET	3.3% CET	
1. 실질환율변화(\$대비)	(0.0)	(0.0)	(0.3)	(0.2)	(-1.9)
= 실질 수출변화	-18.7 (0.0)	-16.2 (0.0)	15,405.3 (0.7)	17,258.8 (0.8)	42,900.0 (2.0)
2. 무역창출효과	286.8 (0.0)	285.8 (0.0)	24,552.6 (1.1)	23,899.0 (1.1)	43,728.8 (2.0)
3. 무역전환효과	0.0 (0.0)	0.0 (0.0)	230.4 (0.0)	272.3 (0.0)	0.0 (0.0)
4. 순 무역창출효과 (4=2-3)	286.8 (0.0)	285.8 (0.0)	24,322.2 (1.1)	23,626.7 (1.1)	43,728.8 (2.0)
5. 소비자잉여 변화	-18.4 (0.0)	-12.7 (0.0)	401.6 (0.0)	267.8 (0.0)	662.5 (0.0)
6. 생산자잉여 변화	-106.5 (0.0)	-97.0 (0.0)	17,532.2 (0.2)	19,806.2 (0.3)	45,392.6 (0.6)
7. 관세수입 포기분	0.0 (0.0)	0.0 (0.0)	126.5 (0.0)	157.2 (0.0)	0.0 (0.0)
8. 경제적 후생의 변화 (8=5+6-7)	-124.9 (0.0)	-110.4 (0.0)	17,807.4 (0.2)	19,916.8 (0.3)	46,055.0 (0.6)

주: () 안은 증감률(%),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GDP의 % 증감분임.

자료: DeRosa & Kernohan,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a GCC · EU FTA*.

부표 2-1. 바레인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4	보일러 · 기계류	164,449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86,174
87	일반차량	119,626	99	기타 제품	80,345
85	전자기기(TV, VTR 등)	118,435	76	알루미늄과 연관 제품	43,818
71	귀금속, 보석류	50,329	52	면 · 면사 면직물	41,331
30	의료용품	41,443	85	전자기기	23,605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31,033	71	귀금속, 보석류	16,536
69	세라믹 제품	27,011	84	보일러 · 기계류	11,891
94	가구류 · 조명기구	26,442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5,586
88	항공기	26,048	31	비료	4,807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부표 2-2. 쿠웨이트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4	보일러 · 기계류	576,023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618,954
87	일반차량	492,766	84	보일러 · 기계류	74,460
85	전자기기(TV, VTR 등)	376,096	29	유기화합물	52,262
88	항공기	119,937	88	항공기	35,867
30	의료용품	111,950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19,591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111,95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179
73	철강제품	109,488	85	전자기기	15,027
62	의류(편물제 제외)	84,262	97	예술품 · 골동품	3,965
94	가구류 · 조명기구	76,404	99	기타 제품	3,155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부표 2-3. 오만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4	보일러 · 기계류	374,097	84	보일러 · 기계류	72,967
87	일반차량	158,73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50,970
85	전자기기(TV, VTR 등)	138,478	03	어패류	27,201
73	철강제품	69,026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19,053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60,874	85	전자기기(TV, VTR 등)	15,443
88	항공기	51,913	88	항공기	8,215
04	낙농제품(조란, 천연꿀)	43,660	71	귀금속, 보석류	6,590
30	의료용품	37,183	99	기타 제품	4,834
99	기타 제품	21,520	73	철강제품	4,767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부표 2-4. 카타르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8	항공기	701,180	88	항공기	402,649
84	보일러 · 기계류	547,13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59,329
85	전자기기(TV, VTR 등)	192,624	29	유기화합물	42,183
87	일반차량	135,683	97	예술품 · 골동품	32,369
73	철강제품	77,60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8,735
97	예술품 · 골동품	69,040	85	전자기기(TV, VTR 등)	26,620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64,444	84	보일러 · 기계류	22,634
30	의료용품	34,218	71	귀금속, 보석류	7,968
94	가구류 · 조명기기	32,295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7,342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부표 2-5. 사우디아라비아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4	보일러 · 기계류	2,780,886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0,755,137
85	전자기기(TV, VTR 등)	1,679,46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08,062
87	일반차량	1,044,873	29	유기화합물	495,110
30	의료용품	709,942	84	보일러 · 기계류	388,376
88	항공기	706,932	88	항공기	183,376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618,403	89	선박류	131,929
10	곡물	413,801	85	전자기기(TV, VTR 등)	92,13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78,535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84,166
04	낙농품(조란, 천연꿀)	351,543	41	원피 · 가죽	32,093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부표 2-6. UAE의 對EU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단위: 천 유로)

對EU 수입			對EU 수출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85	전자기기(TV, VTR 등)	3,534,313	71	귀금속, 보석류	1,059,307
84	보일러 · 기계류	3,168,547	85	전자기기(TV, VTR 등)	769,506
87	일반차량	1,264,620	27	유기화합물광물성 연료, 에너지	745,738
88	항공기	1,120,608	84	보일러 · 기계류	213,580
71	귀금속, 보석류	958,235	01	동물	139,876
73	철강제품	524,802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11,636
90	광학 · 의료 · 측정기기	492,735	61	의류(편물제)	96,169
33	향료 · 화장품	390,054	62	의류(편물제 이외)	91,81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93,424	99	기타 제품	83,298

자료: www.kita.net, EU 무역통계.

Executive Summary

GCC · EU FTA: The Present and its Prospects

Hee-Yeon Bae

New movements in the Middle East region are adding to internal conflicts and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issues that often captures world's attention. One new big movement was made by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a regional organization aimed at protecting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terests of six nations in the Gulf region including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and UAE. Recently, GCC is deepening internal integration by realizing a customs union and drafting framework for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currency. At the same time, GCC is advancing external integration by promoting trade agreements with the world's main traders. So far GCC has concluded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Lebanon and some progress is being made on FTA negotiations with China (the GCC's biggest trade partner), India and Jordan.

Not until the early 21st century, did the integration of six GCC nations move forward.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Iraq War, governments of the GCC nations seriously recogniz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ought ways to build up a foundation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along with plans to reduce high dependency on oil. And as a result, acceleration of GCC · EU FTA was adopted as one of the solutions.

EU was not known for its positive attitude concerning the GCC • EU FTA in the past. But as the EU grope for intra-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centered by the EU, the EU began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and political ties with the Arab region where the United States has had supreme influence. In addition, the EU, as the world's largest service exporter, is also expecting huge profits from entering the GCC's service market while securing oil and gas supply from the world's largest energy exporter. Since the GCC governments need to carry out reform in order to address chronic problems of the region such as high unemployment and low economic growth amid strong oil price, an FTA between the two blocs could serve as a good opportunity. Analysis of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GCC • EU FTA determined that the economic gain of GCC is similar to or larger than that of the EU, which i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And this outcome gives GCC strong incentive to push FTA negotiation ahead. For the GCC side, the petrochemical and aluminum industry which has comparative advantage, would have enhanc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ce GCC • EU FTA comes into effect.

However, FTA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blocs is developing more slowly than expected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Hence, despite both sides' announcement to complete negotiations by this year, it is difficult to estimate when they would actually reach an agreement. Currently, the United States' active involvement in FTA negotiations with the GCC countries is causing internal friction among the GCC countries on the matter of pursuing individual FTAs with the US. This problem is getting bigger having negative impact on the ongoing GCC • EU FTA negotiation.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the expectation from EU on the FTA agenda is too high (covering sensitive issues) is also increasing uncertainty. The EU has recently included human rights,

immigration policy and other issues in the discussion agenda and is preparing a detailed code of execution on subjects such as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netheless, considering the sensitiveness of those issues mentioned above, it is unlikely that tangible progress could be made in the early stage.

Meanwhile, GCC · EU FTA negotiation gives u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we need to consider when Korea starts FTA negotiation with the GCC. Since Korea's dependency of oil and gas on GCC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EU, necessity of promoting FTA with the GCC is larger than that of the EU or China. Considering the keen competition going on in the world's energy market,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needs to begin studying the feasibility of Korea · GCC FTA before it gets too late.

KIEP 발간자료 목록 (2004~05. 9)

■ 지역리포트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朴英鎬
-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朴英鎬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朴映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金興鍾·金均泰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權耿德·金恩志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李哲元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李載榮·申鉉俊·金善英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裴嬉娟

■ 지역연구회시리즈

-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金恩慶·金興鍾
-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金興鍾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李鍾允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張亨壽·鄭余泉

■ 지역연구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朴馥永
-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金興鍾·李哲元·金炳椽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정책연구

-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예의 시사점 / 金元鎬
-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李洪植 外
-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南英淑 外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方浩慶 外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崔洛均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尹昌仁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李彰洙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尹美京·尹昌仁·李相承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楊斗鏞 外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金興鍾 外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鄭仁教 外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朴淳讚·姜文盛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李鴻培 外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池晚洙 外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洪灝杓 外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安炯徒·吳龍協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田一秀·洪錫晉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李相學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李炯根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리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尹昌仁·李哉協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庾泰還·崔允靜·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南相烈

裴嬉娟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現, E-mail: hybae@kiep.go.kr)

著書 및 論文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002)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공저, 2003) 외

지역리포트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2005년 9월 23일 인쇄

2005년 9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81-8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GCC · EU FTA: The Present and Its Prospects

Hee-Yeon Bae

중동지역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 EU는 2005년 4월 바레인 마나마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지난 15년간 지속된 양 경제블록간 FTA협상을 2005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정정 불안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정체되었던 GCC 국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기회로 내부 개혁에 나서고 있어 EU와의 FTA 체결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미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GCC 내부의 마찰, 인권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등 EU의 포괄적인 협상의제 선정 등으로 인해 GCC와 EU간 FTA협상이 언제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그 일환으로 중국, 인도 등이 GCC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일내에 GCC와의 FTA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